

1

중동 주요국의 개발 전략과 한국의 기회

손성현 아·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은 마슈라끄(Mashraq)와 마그리브(Magrib)로도 구분된다. 아랍어로 마슈라끄는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며, 중동에서도 동쪽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의 국가를 지칭한다. 마그리브는 ‘해가 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의 중동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말한다. 또한, 중동에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 중심의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가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주요 산유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 중동의 지역 현황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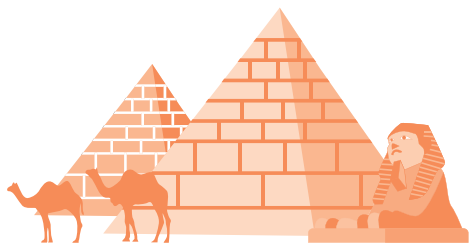
중동은 유럽이 아시아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데에서 유래된 지역 구분이다. 유럽 열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시아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신들과의 거리에 따라 근동, 중동, 극동 등으로 분류하면서 중동이라는 지역적 분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혹은 터키,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확대중동(The Greater Middle East) 등의 여러 가지 분류 개념이 존재한다¹.

중동은 마슈라끄(Mashraq)와 마그리브(Magrib)로도 구분된다. 아랍어로 마슈라끄는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며, 중동에서도 동쪽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의 국가를 지칭한다. 마그리브는 ‘해가 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의 중동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말한다. 또한, 중동에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 중심의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가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서, 중동 주요 산유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동국가 대부분은 20세기 이후에 지금의 국경선을 갖추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오스만 투르크에 포함되어 있다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독립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UAE와 같은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에야 건국이 이루어졌다. 중동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부족, 종파 등과 상관없이 유럽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경선이 형성된 부분이 많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영토 분쟁과 같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중동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슬람(Islam)은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통해 완성된 종교로, 알라(the God)라는 유일신을 믿고, 그의 가르침인 ‘쿠란’을 따르는 것으로, ‘복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이들을 무슬림(Muslim)이라고 한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중동의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슬림은 남녀 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성들은 외부에서 머리, 때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다양한 종



류의 허잡을 두르고 다녀야 한다. 무슬림은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와 꾸란에서 허용한 음식을 섭취한다. 하루 5번 기도(살라)하며,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금식하고 1년 소득의 1/40을 이슬람을 위해 기부(자카트)한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무슬림의 성지인 메카에서 성지순례(하지)를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슬람 자문기구인 슈라 의회(Shura Council)를 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여기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으로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슬람 은행이 발달했다. 그러나 중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전적으로 이슬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기도 한다.

중동은 왕정 국가 등 권위주의 정치체제 비중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UAE, 요르단 등이 대표적인 왕정 국가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최고 통치자로 하고 있으나 군부, 정실 및 후견인 등을 통해 장기간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 알제리와 같은 국가들도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튀니지 등은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그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 앞으로 중동의 민주화 진행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중동 국가 대부분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등과 같은 석유 순수출국은 석유로부

터 막대한 국부를 얻고 있다. 또한, GDP 및 재정 수입에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유가 및 원유 수출량 변화에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석유 순수입 중동 국가도 간접적인 석유 의존도가 높다.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과 같은 석유 순수입국은 인접한 GCC 국가로 많은 자국 노동자를 송출한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 가서 건설업, 소도매업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에서 받은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다. 아울러 역대 석유 순수출국은 소득 수준이 낮은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등에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현물이나 차관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유가가 높아 석유 순수출국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중동 내 석유 순수입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늘어난다. 반대로 저유가 시기에는 석유 순수출국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돌아오는 노동자가 많아 석유 순수입국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이 감소하고, 석유 순수출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규모도 줄어들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중동국가들은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석유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석유 순수출국은 석유 개발 이전에 농경 및 목축업 등이 주력산업이었으나 석유 개발 이후 다른 분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 부문만이 개발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고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 발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유 순수출국은 당장의 부를 얻기 위해 노동력 투입이 적은 석유 부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였다. GCC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유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부터 산업다각화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서야 UAE 등을 중심으로 비석유 부문의 비중 증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중동국가들은 비석유 부문 발전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산업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있는 GCC 석유 순수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동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1 흔히 중동과 아랍, 이슬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동은 지역적 개념이고, 아랍은 민족 및 언어적 개념으로, 아랍연맹에 속한 22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이슬람은 종교적 개념으로, 주로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도 포함된다.

2. 주요 국가별 개발계획

2015년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의 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 통치자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많은 중동 국가 중에서도 4개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만큼 해당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며, 향후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정상 순방이 진행된 GCC 4개국은 장기적인 전략과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종 개발 프로젝트 발주로 연결되고 있다(표1 참고). 이번 절에서는 정상회담을 가졌던 4개 국가의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우리의 협력 수요를 확인해보려고 한다.

표1 GCC 4개국의 국가개발계획

국가	개발계획	중점 개발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 장기경제발전전략 2005~2024 (Long Term Strategy for Saudi Economy 2005-2024) - 제10차 개발계획 2015~2014 (Tenth Development Plan 2010~2014) - 국가산업전략 2020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20)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료, 교육, 금융, SOC, 건설자재
UAE	- UAE 비전 2021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Economic Vision 2030) - 두바이 플랜 2021 (Dubai Plan 2021)	교육, 의료, 주택, ICT 석유화학, 금융, 의료, 관광, 금융,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관광, 건설, 의료, SOC, 문화, 교육
카타르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Qatar National Vision 2030) - 국가개발전략 2010~2014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0~2014)	에너지, 교육, 금융, 관광, 정보통신
쿠웨이트	- 쿠웨이트 국가 비전 2035 - 5개년 중기개발계획 2015~2019 (Midrange Development plan 2015~2019)	무역 및 금융, 물류, 석유화학, 관광,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자료 : 주동주 · 김계환 · 민혁기 · 민영진 · 빙현지, 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산업연구원,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장기경제발전전략(Long-Term Strategy for Saudi Economy, 2005~2024)’이라는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통해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통해 비전 추진 단계를 확인하고, 세부 목표를 수정해가고 있다. 여기에 UN 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와 함께 수립한 국가산업전략 2020을 통해 지식기반사회,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장기경제발전전략은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양질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아래 연평균 6.6% 성장률 달성, 비석유 부문의 성장 유도 및 산업다각화 기반 마련, 산업다각화를 통한 비석유 부문의 GDP 기여도 증가(2004년 2.5% → 2024 82.1%), 민간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주도 및 민간경제 활성화, GDP 내 민간투자지출 비중 증대(2004년 15.4% → 2024년 30.7%), 공공투자지출 비중 축소(2004년 3% → 2024년 1.8%) 등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².

이러한 장기적인 개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5년 단위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8차 개발계획(2005~2009)부터는 장기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지금은 10차 개발계획(2015~2019)을 진행하고 있다. 10차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는 산업다각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개발,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 부문에 여성을 포함

한 고용 창출을 위한 자국민 고용 확대,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관련 금융 지원 장려 등이 있다³.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2 사우디아라비아 10차 개발계획의 중점 목표

개발 부문	중점 개발 분야 및 목표
비석유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산 활동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도입 - 비석유 부문에 대한 실제적인 부가가치를 매년 8.5%씩 증가시키고 비석유 부문의 비중을 2014년 59.1%에서 2019년 66%로 확대
민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의 민간 부문 비중을 2014년 44.9%에서 2019년 50.6%로 증가, 제조업 부문의 연간 성장률을 2014년 8.4%에서 2019년 10.6%로 증가, 광공업 부문을 2014년 6.0%에서 2019년 8.6%로 확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개발, 경제적 자원, 사회 및 보건, 그리고 인프라 등에 대해 공공부문 투자를 총 2조 4,000억 리알로 증가,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3,720억 리알로 9차 개발계획보다 76% 이상 확대

자료 : G20, 2014, COMPREHENSIVE GROWTH STRATEGY: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Kingdom of Saudi Arabia)는 UN 산업개발기구와 함께 향후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산업전략 2020(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20)’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 발전, 국가 비교우위에 대한 집중, 고부가가치 산업 및 첨단 기술 관련 콘텐츠 산업으로의 전환, 중소기업 지원 및 촉진,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⁴. 이를 위해 자동차와 그 부품, 광물 및 금속 가공업, 플라스틱 포장 산업, 가전제품, 태양열 산업을 5대 핵심 발전 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산업 부문 사우디인 고용률을 30%까지 높이고 산업 부문을 총 수출의 35%

까지 확대하며 산업 부문 수출의 30%를 기술 기반 제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또한 산업생산품을 기술 콘텐츠 위주로 전환하고 산업 부문을 GDP의 20%로 확대하며 산업 부문 연 성장률을 8%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⁵.

이러한 산업 및 경제발전계획과 함께 도시개발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내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5년에 걸쳐 총 45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인구 급증, 도시화 등으로 주택 수요는 많으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층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50만 호 주택건설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토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가격 상승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 확보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UAE

UAE는 2010년 비전 2021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 주안점을 둘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6개 분야 및 비전은 △단결된 사회와 주체성 보존 △안전한 사회 및 공정한 제도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 △1급 교육 시스템 △세계 수준의 보건 의료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프라이다⁶. 이

2 박철형, 2010,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4(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Samba Financial Group, 2015, Saudi Arabia: Macroeconomic Forecast Update 2014-20 Including business environment snapshot, Samba Reports Series.

4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Kingdom of Saudi Arabia, 2007,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07 - 2020: Industry 2020

5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Kingdom of Saudi Arabia, 2007,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07 - 2020: Industry 2020

6 Vision 2021, UAE Vision, <http://www.vision2021.ae/en/our-vision> [검색일: 2015. 9. 23]

러한 비전의 하나로 2014년 알 막툼 국무 총리는 2015년을 혁신의 해로 선정하여 국가 혁신 전략을 선포하면서 우선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7대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7년간 7개 분야의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였다⁷. 7대 분야는 재생 에너지, 운송 및 물류, 교육, 보건의료, 최신 과학 기술, 수자원, 우주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조성, 정부혁신, 민간혁신, 인재혁신이라는 4가지 트랙을 병행하기로 하고 16개의 혁신 평가 지표도 도입하여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할 예정이다⁸.

UAE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인 아부다비와 중동의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를 중심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부다비는 경제비전 2030(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을 통해 아부다비만의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은 지속가능한 경제 건설과 균형 잡힌 사회 및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모두의 이익 공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⁹. 이를 위해 개방적, 효율적, 효과적이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 환경 조성, 경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재정정책 채택, 인플레이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탄력적 통화 및 금융환경 구축, 노동시장 효율성 개선, 경제성장률 예

측이 가능하도록 돕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프라 개발, 고급 기술 및 고급 노동력 개발,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등의 세부 추진 분야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은 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우주항공 및 방위, 제약 및 생명공학, 관광,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 교통 및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와 같은 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¹¹. 또한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도심 개발계획(Plan Abu Dhabi 2030: Urban Structure Framework Plan)도 함께 추진하며 주택 및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15년 전략 계획 발표 이후 2020년 엑스포(EXPO) 추진과 새로운 목표를 통해 지속가능성, 투명성, 기업가정신, 혁신, 창의성의 진일보를 목표로 2013년 계획 설립 후 2014년 두바이 계획 2021(Dubai Plan 2021)을 발표한 바 있다¹². UAE도 아부다비와 차별화된 개발 목표를 위해 사람, 사회, 경험, 정부, 경제, 장소라는 6개의 테마로 다양한 전략 목표를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치와 건설 프로젝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스마트 시티,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신재생 에너지 및 효율성 증대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의 발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¹³.

다.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상업과 경제 허브가 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쿠웨이트는 이러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비전 2035를 마련하고 여기에 △GDP 증대 및 시민 생활 개선 △민간 부문 주도 경제발전 △인적 및 사회적 개발 지원 △개발 지원을 위한 인구 정책 강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7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2015,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15. 4월)

8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2015,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15. 4월)

9 The Government of Abu Dhabi, 2008,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10 남옥정, 2013, 아부다비 경제발전 전략: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 (10월 30일)

11 The Government of Abu Dhabi, 2008,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12 박하얀, 2015, 두바이 플랜 2021 발표, 글로벌 원도우 (1월 9일)

13 박하얀, 2015, 두바이 플랜 2021 발표, 글로벌 원도우 (1월 9일)

정부행정과 같은 5개 분야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이후 6단계로 이루어진 중기발전 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첫 번째 중기계획에 이어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5~2019)을 발표하여 국가비전을 위한 추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주안점은 경제개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쿠웨이트 장기비전전략의 현실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5개년 개발계획의 하나로 민간 부문의 비중을 2014년 26.4%에서 2020년 41.9%까지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자국민도 2014년 92,000명에서 2020년 137,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⁴. 또한 지난 개발계획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연기되거나 개발이 중지된 매트رو(metro) 및 GCC 철도, 부비안 섬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Mubarak Al Kabeer Port) 추가 개발, 실크 시티(Madeenat Al Hareer, Silk City) 건설, 파일라카 섬(Failaka Island) 개발, 남부 지역 하수 네트워크 및 공장 확장, 카브드(Kabd)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도 포함되었다.

5개년 중기개발계획 2015~2019를 통해 향후 5년간 340억 달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421개 외에 92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⁵. 또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80억 달러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¹⁶. 그리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쿠웨이트 민자사업청(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KAPP)이 각종 민관협력투자를 감독할 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5개년 계획(2010~2014)의 세부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바 있으며, 최근 저유가로 정부 재정 지출 축소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번에 수립한 계획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웨이트는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화를 위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

립하였다. 특히 중기개발계획 2010~2014를 통해 쿠웨이트 북부에 5만 2,000호 규모의 실크시티 신도시, 3만 6,000호 규모의 키란(Khiran) 신도시, 1만 8,000호 규모의 무틀라(Mutlaa) 신도시를 포함한 6개의 대규모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¹⁷. 하지만 쿠웨이트 의회의 잦은 교체와 정권 간 갈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총 40억 달러 규모의 무틀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으며¹⁸,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 카타르

카타르는 장기개발계획으로 카타르 국가비전 2030, 중기비전으로 국가개발전략 2011~2016을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은 다각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2008년 발표되었다¹⁹. 이 비전에는 인적자원 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개발이 주요 발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카타르의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노동시장 개선 등을 중점 개선 분야로 지정하였다. 사회개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이슬람적, 아랍적 가치를 지키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여성의 정치 및 경제 참

¹⁴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¹⁵ Gulf State Business, 2015, Kuwait Nod to KD 34BN Development Plan, February 4 2015

¹⁶ ConstructionWeekOnline.com, 2014, Kuwait aiming to resurrect stalled mega-projects, (August 17)

¹⁷ 이삼식, 2015, 쿠웨이트 대규모 신도시 개발 막 올랐다. 글로벌윈도 (5월 20일)

¹⁸ 이삼식, 2015, 쿠웨이트 대규모 신도시 개발 막 올랐다. 글로벌윈도 (5월 20일)

¹⁹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08, Qatar National Vision 2030.

여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개발은 높은 생활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장량과 생산량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선진화된 기술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 카타르의 경제 능력 향상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개발에서 개발 수요와 환경 보존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카타르는 장기 개발계획인 국가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중기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국가발전전략 2011~2016이 그 첫 번째 계획이다. 국가발전전략은 국가비전 2030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카타르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화 추진 간 균형 유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이익균형 유지 △성장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확장 통제 △개발과정에 부합하는 외국 노동력의 규모 및 수준 유지 △경제적 성장, 사회개발 및 환경의 3자 간 조화와 같은 5개 분야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²⁰.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탈석유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 민간 부문 육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5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카타르 정부는 개발 관련 인프라의 난개발을 막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거나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발주하고 있다. 그리고 루사일 시터를 비롯해 에듀케이션 시티, 알 코르(Al Khor) 시티, 알 와크라(Al Wakra) 시티 등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루사일 시터는 총 4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로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여 지하 차도, 교량, 변전설비 등을 건설하고 있다²¹.

3. 한국의 기회

중동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수주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에 따른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발주 국가의 정부 재정 흑자가 감소하고 및 적자 전환이 발생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도 정권안정을 위해 공무원 임금, 각종 복지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저유가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의 취소 및 발주연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표3 참고). 이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저유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심해유전 및 오일샌드와 같은 고비용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1,000억 달러에 달하는 26개의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있다²².

표3 중동 주요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 사례

국가	프로젝트명	규모	상태
카타르	알카라나 석유화학단지	60억 달러	발주 취소
카타르	알-세질 석유화학단지	74억 달러	발주 취소
카타르	샤크 크로싱 교량 및 터널	60억 달러	발주 연기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소	30억 달러	발주 취소
사우디아라비아	슈아이버 정유 저장 터미널	6.5억 달러	발주 보류
이라크	웨스트 쿠르나 가스터빈 발전소	7억 달러	발주 연기

자료 : 각종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


20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11,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21 강세기, 2013, 카타르, 2,200억불 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 해외건설협회

22 Adams, Christopher, 2015, From Canada to Australia, energy groups' cuts are laid bare, Financial Times. (May 18).

그러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부문은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의 인구증가율은 2~3%로 높다. 또한 산업다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각종 산업도시, 경제도시 및 경제특구 등의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발달된 기존 지역이 아닌 정부의 개발계획에 의한 신도시 개발로 연결된다. 즉 GCC 국가를 중심으로 신도시, 산업 및 경제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은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및 석유 관련 프로젝트보다 축소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에서 인구 규모도 크고 증가율도 높고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등의 치안 상황이 개선된다면 기존의 개발 경험 공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IT와 관련된 스마트 시티, 폐기물 처리 및 친환경 건축물, 스마트 그리드 등의 기술력을 접목한 도시 기획 및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등의 신도시 개발은 물류 시설 및 배후단지와 연계된 발전이 예상되며, 이를 중심으로 경제특구 공동 조성, 제조 기업 공동 진출 등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업도시 및 경제도시는 항만, 철도, 공항과 연결성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여

기에 도시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헨진 경제기술개발구(TEDA)가 이집트 수에즈 특별경제구역 내 중국 특구를 조성한 바 있으며, 중동 내 내수시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나 물류 인프라가 잘 발달한 UAE 등에 이와 같은 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세기, 2013, 카타르, 2,200억불 규모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 해외건설협회
- 남옥정, 2013, 아부다비 경제발전 전략: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 2013.10.30.
- 박철형, 2010, 사우디아라비아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4(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하얀, 2015, 두바이 플랜 2021 발표, 글로벌 원도우(2015.01.09.)
- 주동주 · 김계환 · 민혁기 · 민영진 · 빙현지, 2012, 중동 GCC 산업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 산업연구원
-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2015,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15.04.)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7호
- 이삼식, 2015, 쿠웨이트 대규모 신도시 개발 막 올랐다, 글로벌 원도우(2015.05.20)
- Adams, Christopher, 2015, From Canada to Australia, energy groups' cuts are laid bare, Financial Times. (May 18)
-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08, Qatar National Vision 2030
- 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 2011,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 ConstructionWeekOnline.com, 2014, Kuwait aiming to resurrect stalled mega-projects. (August 17)
- Gulf State Business, 2015, Kuwait Nod to KD 34BN Development Plan, (February 4)
- G20, 2014, COMPREHENSIVE GROWTH STRATEGY: KINGDOM OF SAUDI ARABIA
- Samba Financial Group, 2015, Saudi Arabia: Macroeconomic Forecast Update 2014-20 Including business environment snapshot, Samba Reports Series.
- The Government of Abu Dhabi, 2008,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 Vision 2021, UAE Vision, <http://www.vision2021.ae/en/our-vision> [검색일: 2015.09.23]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Kingdom of Saudi Arabia, 2007,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07 - 2020: INDUSTRY 2020